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1월 3일 (제1278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배타적인 생각

가끔 타 교단 목회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유튜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궁금한 것이 생긴 모양이다. 그들이 나에게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 “귀신의 정체는 뭐냐?” 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찾아가며 설명해준다.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이고, 그것들이 마귀의 지령을 받아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가난하게 한다고.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는 것은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런데 내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말을 믿어내는 자가 있다. 나는 그들에게 더는 말을 삼간다. 마음을 열지 않은 자를 붙잡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이다.

성공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뭔지 아는가? 바로 배타적인 생각이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성장을 저해한다.

배타적인 생각의 원인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고정된, 틀에 갇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찌 남의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건 고집이다. 문을 열어라! 대원군의 왜국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막힌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생각이 열려 있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던 반면,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사방이 막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이다. 생각의 틀을 깨야 세상이 열린다.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발전할 수 있다. 배타적인 생각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뿐이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고정관념을 깬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고정관념을 깨야 우리 삶에 희망이 찾아온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호주로 떠나며 이 글을 씁니다. 아마 이 글을 신문을 통해 보시게 될 때면 시드니(Sydney) 집회에 대해 이미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드니예수중심교회가 집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우리의 21일 작정기도가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있었는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목사님은 바로 호주 시드니 집회를 위한 21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셨지요. 그동안 여러 해외집회를 진행하시며 성도님들께 항상 기도를 부탁드렸지만, 이번처럼 작정기도를 선포하신 적

고해준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찾았더니 문 목사님이 알고 지내던 호주 현지인이 SNS 광고 분야에 전문가였나 봐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꺼이를 넘어 열정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라디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인보다 호주 현지인이나 거주 외국인들의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직접 교회를 찾아와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 집회에도 꼭 참석하겠다고 했대요. 또 교회에 음향 엔지니어가 없어 총회장 목사님께 지원요청을 드렸다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만 들었지만, 그래도 집회에 꼭 필요하니 다시 강청을 드리려 했는데, 놀랍게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호주로 떠나시기에 앞서 인천 교회에서 주일에배를 인도하시며 “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 목사님의 40년 목회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앞에는 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악한 마귀가 끝까지 따라오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들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벧전5:8). 따라서 인생의 암초는 늘 도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목사님을 영접하는 시드니예수중심교인들

은 없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시드니예수중심교회 담임이신 문정훈 목사님과 디모데 전도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게 될 거라 믿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문 목사님께 집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막막한 심정이었다고 하네요. 많지 않은 성도들, 그나마 받은 새신자이고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누가 광고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게다가 겨우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그 주위에서 ‘왜 이단 교회 나가냐고 책기를 박아 빠져나가고, 기독교 측 신문 광고를 처음에는 내준다 했다가 이단 교회라며 핑크를 내지 않나, 지역 일간지에서는 종교와 정치 이슈는 안 된다며 핑크를 내지 않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오히려 광

도 브리즈번(Brisbane)에 거주하는 성도 한 분이 음향 엔지니어를 섭외해와서 같이 연습도 하고 집회 때도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또한 집회를 돕는 현지인들이 ‘왜 한인교회들과 연합해서 준비하지 않느냐?’고 질문해서 솔직하게 이단 시비에 대해 설명했더니, 자기들도 귀신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안이고, ‘너희 교회 예배를 참석해보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느꼈다’며 오히려 격려해주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죠. 경험해보지도 않고 남 얘기만 듣고 정죄하고 판단해서야 되겠어요?

문 목사님과 디모데 전도사에 따르면 총회장 목사님께서 21일 작정기도를 선포하신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낀다며 계속 기도

도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은 그 암초를 치워주시지 않아요. 그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시청 집회 때 경험하셨죠? 40일 작정기도로 온 성도가 합심기도를 했는데, 집회 당일 어땠나요? 엄청난 소음으로 사실 엄청 차질을 빚을 뻔했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고, 영상으로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번 호주 집회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호주 시드니 집회
10월 28일~11월 5일,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1:15~40)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한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22:8).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미리 뽑아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아례’라 명명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원 얻을 자도 예정해놓으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그렇게 준비가 철저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있는 산파를 준비하사 그의 목숨을 건지셨고, 그를 더욱 기를 수 없게 될 때는 바로의 딸을 준비하사 임마를 유모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입이 둔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물과 만인을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역시 준비가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위해 준비하셨으며, 그분은 공생애 기간에도 늘 기도도 늘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는 기도에도 있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성령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요14:2~3).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막13:37). ‘깨어 있으라’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가 그림의 떡이 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려거든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정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다녀오니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한 사람을 치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실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유례없는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운

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최대 부국(富國)으로, 최대 강국(強國)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리던 가족과 다시 상봉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수확하는 열매입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의 아버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들도

다 확보해놓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부도날 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화를 넉넉히 비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부도나는 판인데, 인생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먼저는 삶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저축하는 것, 운동하는 것 모두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축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집은 그림의 떡이고, 아름다운 황혼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자에게 구구팔팔(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엉덩이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공부하면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저축해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노년이 아름답게 됩니다.

어떤 분은 왜 빨리 서울 성전을 안 짓느냐

고 합니단만, 이제 선포한 지 1년 남짓입니다.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완벽히 준비한 후에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짓다가 말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14:28~30).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는 구원 얻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롬10:9~10).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후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았다는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받을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상과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사후를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계2:10).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준비합시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여 내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하셨으니 전도에 힘쓰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봉사에 전념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베풀고, 구제하는 충성된 자가 됩시다. 기회는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사 철저히 준비하여 기회가 왔을 때 확 낚아챌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12:4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번 서울 시청 앞 12차 평화통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동을 준비한 리조이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을 드리자. 또 각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을 자신에게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준비하게 하였다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3일 남겨둔 상황에서는 아이들 중 몸살감기가 나타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탈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작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각자에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연습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견디고 참아내며 이겨내야 한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변수가 생겨났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도 지금의 이 고비를 뛰어넘어서 멋진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며 아이들을 독려했고, 아이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을 드렸다.

어찌 리조이스 아이들뿐이겠는가.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평화통일 집회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여정은 절대 쉽지 않다. 나 자신이 수고한 만큼, 노력하고, 충성한 만큼 주 앞에서 상을 받는다(답후4:7~8).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순간순간 올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의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뛰어넘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단3:13~30), 다니엘 또한 사자굴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았다(단6:10~24). 이처럼 믿음의 선전들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어떠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지나치실 정도로 온 힘을 다하신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교단의 성장 배경이 아니겠는가.

주일, 수요일에 매 때마다 저에게 오시는 문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탁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를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다’, 이 문자의 말씀이 오늘도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순간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자. 그날의 면류관을 향하여!

장영국 목사

:: To Be Succeeded ::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로 승리하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껌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돕고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얻으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며, 기도하게 하셨다.

이후 곧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평안했고,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감사한 마음만 생겼다. 닥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 것으로 체득되지 않았기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실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들으심을 입어서 아들을 얻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한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영·혼·육의 묶임이 풀리고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 목사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해주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신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끝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 갇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감사 고백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며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 목숨을 위협받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등 극심하게 마음고생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기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누릴 수 있었던 감사와 평안이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루 세 번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류, 소통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이국진 사모

:: 오늘의 메시지 ::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 마음이 갈라진 성도들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겹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치워버리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과감히 배설물로 버린 사도 바울처럼(빌3:7~9).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종교적 행위를 다 지켰노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며, 소유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등지고 돌아섰다고 기록한다.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섬김의 결과가 예수님을 등지게 한 것이다(막10:19~22). 또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청하니 어떤 자들은 발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들 역시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섬긴 자들이었다(눅14:16~24).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과 가족들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유언으로 권면했고(수24:14~15),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호통친다.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좇으라고(왕상18:21).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하나님도 섬길 것인가?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분명한 꾀대를 세우자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 농촌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땀을 흘리며 밭을 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드릴 생각이 나서 소년은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 서투른 쟁기질로 한 참 갈다 보니 아버지가 간 밭의 고랑은 똑바르나 자기가 간 고랑은 구불구불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처음 쟁기질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갈 수가 있다.”고 하셨다. 소년은 그 말씀을 마땅히 여겨서 독에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역시 고랑은 똑바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황소가 자주 움직이니까 너의 고랑도 구부러지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은 것에 목표를 두어라.”고 하셨다. 그래서 소년은 앞에 우뚝 솟은 미루나무에 목표를 두고 밭을 갈았더니 비로소 똑바로 갈 수 있었다.

인간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를 갖지 못하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생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나의 생명과 정열을 다 바칠 수 있는 목표나 신념을 가질 때 우리는 생의 충실함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심령 속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목표나 방향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이 귀중한 생명이 삶의 목표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만날 때 그것은 더욱 빛나고 힘을 갖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꾀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2~14) 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정하라. 세상 것에 목표를 두면 세상 풍류에 따라 흔들리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4:18).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분명한 꾀대를 세우자.

임택함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우리는 잊을지라도

얼마 전, 우연히 6년 전 작성한 ‘중보기도 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정리해서 팀원에게 ‘중보기도 리스트’로 나눠주며 함께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남아있던 것이지요. 교단 내 집회 성공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임종이 멀지 않은 가족의 영혼 구원, 본인과 자녀들의 건강 문제, 사업의 어려움 등등 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열된 가운데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나 그 결과를 보니 대부분의 기도제목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우리가 그때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내용’들도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선고에도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던 가족이 결국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독교장을 치렀던 기억, 폐렴, 아토피 등등으로 고생하던 자녀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했고, 사업 관련 어려움들도 무탈하게 해결되어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등등, 결과 위에 서서 지나온 과정을 되짚어 보니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걸었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에 감격이 물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이사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사49:15~17)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시다! 지금 바로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설령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나와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오늘 나는♪

공직에 있는 나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한다. 공공서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만 들어주는 건설적인 민원도 많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로 공격하는 민원들도 빈번히 일어난다. 그런 날은 내가 무엇 하러 그들에게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했나 하는 깊은 분노에 빠진다. 직장동료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 나는 그때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업무가 잘 마무리가 되고

직장동료가 상사에게 최종보고를 할 때 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괜스리 섭섭함을 느끼고 동료직원이 미워질 때가 있다. 이런 일들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때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신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크리스천으로서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

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의 친절과 도움엔 보상심리가 깔려있었음을 발견한다. 죽을 이유 전혀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이웃을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전호정 집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의 가사에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한다는 고백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 생각, 뜻이 어떠한지 알아야 같은 마음, 생각, 뜻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 기도, 특히 들만의 비밀대화인 방언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요.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항상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영혼과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

험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앞둔 어느 날, 쪽두새벽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간밤에 제가 주의 종 길을 가다가 죽는 꿈을 꿔는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당장이라도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총회장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가야겠다고 저를 깨우신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기도원에 머물고 계셨고, 저는 아무런 연락을 드리지 못한 채 무작정 기도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원 사택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 목사님은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며, 언제 나오실지 모른다는 답변만 받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이 열리게 들어가보니 목사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지금 기도 중이었다. 근데 너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기도해보니 만나주어야했던 생각이 들어 나온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도 하나

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고(출 32:32), 사도 바울 역시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롬9:3).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지요(빌2:5). 이번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도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교단의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었기에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을 본받아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명품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청출어람(靑出於藍) 하리!

최근 신학교 영어 집체 교육을 통해 영어설교 달인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며 학습하고 있다. 그중 나의 눈에 유독 들어온 영어설교의 달인은 20세기 최고의 복음사라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였다. 알아듣기 쉬운 설교와 호소력 있는 언변으로 청중들을 감화시키는 그레함 목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꿈은 원래 야구 선수였다. 큰 스타디움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는 야구방망이가 아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세계 곳곳의 스타디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는 특히 1973년 여의도 광장 110만 명 집회를 통해 많은 한국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생전에는 북한에 2번이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을 선물하기도 하고 북한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평생 400번이 넘는 전도집회(Crusade)를 전 세계 6개 대륙을 다니며 185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개최했다. 또한 그의 설교를 현장에서 들은 사람은 2억 명이 넘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그레함의 생애 동안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22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총회장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본케 목사님의 영상을 보며 ‘나도 백만 명 앞에서 설교하리라’는 꿈을 끼치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 최근 평화통일 기도성회 당시 영상을 통해 또 한 번 깨달은 것은 우리 목사님이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영어설교에 능통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다. 분명 한국말로 설교하심에도 적재적소에 영어를 사용하시고 그 양은 상당했다. 목사님도 저렇게 능통하게 영어를 외치시는데 우리가 못할쏘나? 신학생들은 시작은 미약하게 영어 설교문 10줄을 외우고 또 외우지만 분명 훗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총회장 목사님처럼 유창한 영어설교의 달인이 될 걸 믿는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

송헌혜 생도

서울성전 건축한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